



디자인의 심플함과 고급화 추구

제36회 산업디자인전람회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이성수 · 최병목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서 공한 포장디자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획자와 디자이너의 절묘한 조화가 필요하다. 기획자는 제품의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시장조사, 동종 상품의 벤치마킹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디자인의 방향과 계획을 설정해야 하며, 디자인 작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원래의 의도한 대로 디자인을 구현하도록 다잡아주어야 한다. 디자이너는 기획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아가 상품의 특성까지 파악해 지기구조, 재질 등의 사항까지도 꼼꼼히 체크, 제품이 상품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제36회 산업디자인전람회에서 포장디자인분야에서 최고상인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작품 '미주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디지털 포장디자인' (본지 지상전시란 참조)의 공동제작자인 이성수(사진 왼쪽)씨와 최병목(사진 오른쪽)씨는 앞서 말한 디자이너와 기획자의 조화가 가능했기에 영광의 수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우수한 작품이 많았는데 수상을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우리들의 공보다도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특히 지기구조나 재질면에서 참신하고 기발한 작품이 다수 선보였는

데 다른 작품의 수상기회를 잃어버리게 한 것 같아 죄송스럽기까지 하다"는 겸양의 말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이번 수상작품은 MP3, PDA, 디지털 카메라 등 최첨단 멀티미디어 제품의 포장을 일관성과 통일성의 주제아래 하나로 묶어 POP기능을 갖도록 모듈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이 고가이다 보니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의 정보통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소비층을 설정, 검은색과 흰색을 주톤으로 사용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을 통해 제품의 종류를 포장박스의 그래픽으로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손잡이를 부착하는 등 구매자의 편리를 최대한 설정하는 세심한 배려를 했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 제품의 포장디자인이 조잡하여 수출시장에서 많은 고전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고급화에 주력, 외국 어느 상점에 진열해 놓아도 디자인의 미려함을 인정받는 데서 수상 할 수 있었다.

이성수씨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다.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틈나는 대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구현하도록 이번 작품에 신경을 쓰는 등 주로 작품의 기획을 담당하고, 최병목씨는 같은 대학원에 다니면서 현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이번 작품의 디자인을 주로 맡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작품의 준비기간이 4개월 정도라고 밝혔지만, 실은 이번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했다. 실제 제작기간이 4개월 가량이지 아이디어의 도출기간을 합하고 그 아이디어를 디자인으로 구현하는데 4개월이 소요됐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보통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어 가격이 정해질 때 포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단가 중 6%~9%의 가치를 매기고 있다. 포장이 차지하는 분야가 그 이상의 비중을 갖는다면 포장디자인은 제품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칫 '미주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디지털 포장디자인'은 상당한 고급스러움을 추구,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품이 상당한 고가의 제품임을 상기한다면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심사위원들도 이 점을 심분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이번 제36회 산업디자인전람회의 포장디자인 분야의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장디자인은 그 자체로써 상품과 동일시해야 한다는 데서 디자이너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픽적 요소의 배려뿐만 아니라 외적인 요소(지기구조, 상품의 가격, 포장의 재질, 마케팅 등)를 파악하는데서 곤혹을 겪는 일이 있다. 대학에서 포장디자인을 강의하는 교수들로 이점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다. 디자인 외적인 요소의 파악은 사실 디자이너 혼자만의 몫은 아니다.

디자이너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것이 우리나라 포장디자인의 현실이다. 디자이너들, 특히 포장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는 독단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항상 열린 자세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에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성수, 최병목씨는 항상 팀워크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데서 훌륭한 포장디자인이 탄생하지 않았나 한다. 두 사람은 끝으로 이번 작품을 하기까지 물심양면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정광용 교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

박기진 기자